



오비맥주, 대용량 '카스 2.0 메가 페트' 출시
오비맥주가 2L 대용량 페트인 '카스 2.0 메가 페트'를 선보였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성비와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편리성을 충족하기 위해 기획했다. 기존 1.6L 페트 대비 용량이 400ml 늘었지만, 용량당 가격은 보다 저렴해졌다. 운반과 보관이 용이해 캠핑 등 외부 활동 시 보다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

美바이든 자국주의 정책에 국내업계 '초비상'

반도체·자동차 이어 바이오도 '메이드 인 USA'

바이든, 바이오 제조 자국생산 예고
국내업계, 해외 위탁생산 제동 위기
정부 "美의 구체적 조치 보고 판단"
중국 견제 정책...기회라는 시각도



미 정부 차원에서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의 자국 내 연구 및 생산을 강화한 첫 행정명령이 공개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불꽃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국내 바이오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현지시간) 미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 연설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불꽃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국내 바이오산업까지 확대됐다.

미국 백악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생명공학, 바이오제조 혁신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의 자국 내 연구와 생산을 강화한 첫 행정명령이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산업육성법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바이오산업 행정명령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서명한 반도체 산업육성법과 마찬가지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국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백악관은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외국 원료와 바이오제조에 너무 많이 의존했는데 과거 핵심 산업에 대한 오프쇼어링(해외 아웃소싱)은 중요 화학물질과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한 우리 접근 능력을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생명공학 분야가 제조업 분야와 결합해 30조 달러(약 4경137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14일 관련 회의를 열어 이번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바이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인해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제약의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아직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탁하지 않고 자국 생산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면 우리 업계의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코로나19백신 등 여러 미국 기업의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노바백스의 코로나19백신을 국내에서 원액부터 제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해외 위탁생산에 제동을 걸고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게 되면 그동안 생산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해온 기업들로선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아끼고 있다. 미 정부가 180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바이오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첨단 바이오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올해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의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퀘어(BMS)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마련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국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산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전세계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경쟁력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미국이 전폭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유럽 등도 투자 확대를 검토할 것이 자명해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폭적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국제망에 PQC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SK텔레콤 연구원들. 사진제공 | SK텔레콤

SKT, 국제망에 첫 양자내성암호 상용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국제망 구간에서 양자내성암호(PQC)를 국내 처음 상용화했다.

SK텔레콤은 국제망을 이용하는 글로벌 VPN(가상사설망) 네트워크에서 PQC를 상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PQC는 양자컴퓨터로도 풀어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PQC 상용화를 통해 QKD(양자암호키분배기)와 QRNG(양자난수생성기)에 이어 양자암호 기술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8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PQC-VPN 설치를 완료하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박종관 SK텔레콤 인프라 기술 담당은 "SK텔레콤이 양자보안기술 전반을 주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도 양자암호기술을 선도하고 양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홈플러스 '바프허니버터아몬드 막걸리' 단독 판매



홈플러스가 '바프허니버터아몬드 막걸리'(사진)를 단독 판매한다. 견과류 브랜드 바프와 막걸리업체 서울장수가 협업한 제품으로, 양사의 대

표 인기상품 허니버터아몬드와 장수막걸리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최상의 맛을 구현했다. 허니버터아몬드의 달달하고 고소한 맛을 장수막걸리의 감칠맛, 청량감에 담백하게 녹이며, 인공적인 맛이 아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달콤·고소한 맛을 잘 살렸다는 평가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매복 사랑니, 방치 땀 낭종 발생 가능성 ↑ 치열 흔들림·충치·염증 등 치아 건강 악화

사랑니는 구강 안쪽 깊이 자리한 만큼 사랑니 위생 관리가 다른 치아 대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랑니를 방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사랑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랑니 맹출 형태가 가지런하다면 굳이 고의로 방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개인마다 사랑니 모양, 크기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맹출 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랑니가 매복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복 사랑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잇몸 속에 파묻혀 등장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매복 사랑니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낭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낭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어금니 등 주변 치열을 가혹화하는 요인이 된다. 나아가 치과 주위염 발병을 부추기고 충치, 염증 등의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매복 사랑니로 인해 주위 치조골이 녹아 사라져 임플란트 등의 시술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신경치료, 잇몸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랑니 매복치 발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매복 사랑니 발치는 치과 진단 및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치료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보서 서울우리치과 우승욱 원장**

LG 초거대 AI 엑사원, '파슨스'와 맞손... "세상에 없던 디자인 만든다"

(세계 3대 디자인 스쿨)

디자인서 활용 가능 AI기술 연구
창작 플랫폼 '엑사원 아틀리에' 개발
"디자이너와 호흡하는 AI 만들 것"



배경훈 LG AI연구원장(오른쪽)과 이본 왓슨 파슨스 총괄학장. 사진제공 | LG

초거대 인공지능(AI)이 예술분야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는 세계 3대 디자인 스쿨 중 하나인 '파슨스'와 함께 세상에 없던 디자인을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슨스 캠퍼스에서 'LG-파슨스 크리에이티브 AI 리서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구원은 파슨스와 초거대 AI '엑사원'을 기반으로 디자인 및 예술 영역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 및 방법론을 공동 연구한다. 특히,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전문 디자이너 및 예술가와 협업하는 AI 서비스'를 고도화 한다

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디자이너가 AI와 협업하며 창조적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인 '엑사원 아틀리에' 서비스를 개발했다. 파슨스와 이 플랫폼으로 전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엑사원은 텍스트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3억500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 언어의 맥락까지 이해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능력을 갖춘 초거대 AI다.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7분 만에 256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2월 뉴욕패션위크에서 AI 아티스트

'틸다'를 통해 AI와 인간과의 협업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LG는 파슨스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외 유명 디자인 스쿨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크리에이티브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파슨스와의 협업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AI 디자인 전문가를 만들고자 한다"며 "단순히 그림을 그려내는 AI가 아닌 디자이너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문가 AI로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고, 엑사원 아틀리에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가을 장미와 함께" 에버랜드, 바비큐 페스티벌 개최

16일부터 세계 바비큐 30여 종 선보

에버랜드가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미원에서 세계 바비큐 축제 '레드엔그릴'(사진)을 진행한다. 독일, 미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바비큐 메뉴 30여 종을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에버랜드 직영 레스토랑을 비롯해 돈스파이크바비큐하우스, 리스틱스모크하우스, 파파스치킨센터(엔바이콘) 등

지난 축제에서 인기가 높았던 외부 브랜드까지 총 9개의 바비큐 부스가 문을 연다.

장미원 일대는 9월 말에 100만 송이 가을 장미가 만개해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야외 공연도 다양하다. 24일 재즈, 마술, 브라사밴드 등 '정춘마이크' 스페셜 공연을 하고, CJ문화재단의 인디 뮤지션 지원 사업 튜업과 함께 하는 '폴 인 가든 콘서트'도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포시즌스 가든에서 열린다. 김재범 기자

